

김안과병원 김응수

무더위가 수그러들어가고 있는 8월 말쯤 어느날 오후에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뿌듯함을 가지게 하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리모델링공사가 한창중이었다. 병원 인증평가를 위한 리모델링공사가 활발히 병원 안팎으로 진행되고 공사를 위한 사람들도 여기 저기 많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직원들도 병원인증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한참 교육과 공부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병원인증평가를 위한 5개의 필수 직원교육중에는 심폐소생술 과목도 있었다. 그러나 나름의 사이기는 하지만 인턴생활을 제외하고는 줄곧 환자가 살고 죽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안과 의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소아청소년과 또는 내과 의사나 알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직접 하는 것은 더더욱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문제였다. 언제였던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아이가 과호흡증후군으로 손발이 저리고 정신이 몽롱할 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의사를 찾는데 안과 의사인 나와 피부과 의사인 다른 선생님이 서로의 전공과목을 물어보고는 같이 민망해 했던 기억이 있다.^^ 여하간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고 일전에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병사와 장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긴 했지만 주위에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만을 내심 바라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날도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올라와 연구실에 잠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평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소리가 꽤 커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내다보니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설치된 사다리차가 회전하면서 고압선을 건드리고 만 것이었다. 속으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내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지켜보니 한사람이 사다리차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까지만 해도 그냥 부딪혀서 충격으로 쓰러졌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동료로 보이는 사

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려는지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잠시동안 보고 있던 나는 이걸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바로 뛰어 내려갔다. 입가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에서 배운 기억이 나서 우선 심장 박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맥박을 잡아 보니 맥박이 뛰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남의 눈만 보고 사는 안과 의사인지라 심정지인지 심실세동인지 판단이 되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있던 동료에게 비켜서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환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고개를 옆으로 젖혀달라 하고는 소생술 교육 받은 것을 기억해내면서 두손을 모아 가슴을 힘껏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1분 정도 지났을까 119 구급차가 도착하여, 가지고 있던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실세동임을 파악하고는 전기충격을 가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순간 당황한 마음도 생겼지만 바로 119 구급차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근처 다른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었다. 다행히 구급차안에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던 중 맥박이 돌아와 응급실에 도착할 즈음에는 의식은 없었으나 심장은 정상리듬을 되찾은 상태였다. 응급실 의사의 한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제서야 환자를 잘 보니 양손으로 고압전류가 들어가 오른팔로 나간 것으로 짐작되는 양손과 오른쪽발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맥박은 정상으로 회복하였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였나 싶어 걱정을 하면서 환자를 인계해 주고 돌아서 나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쪽 병원 직원에게 들으니 조금후에는 의식도 돌아오고 점차 회복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제서야 안과 의사인 나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했구나하는 안도감과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